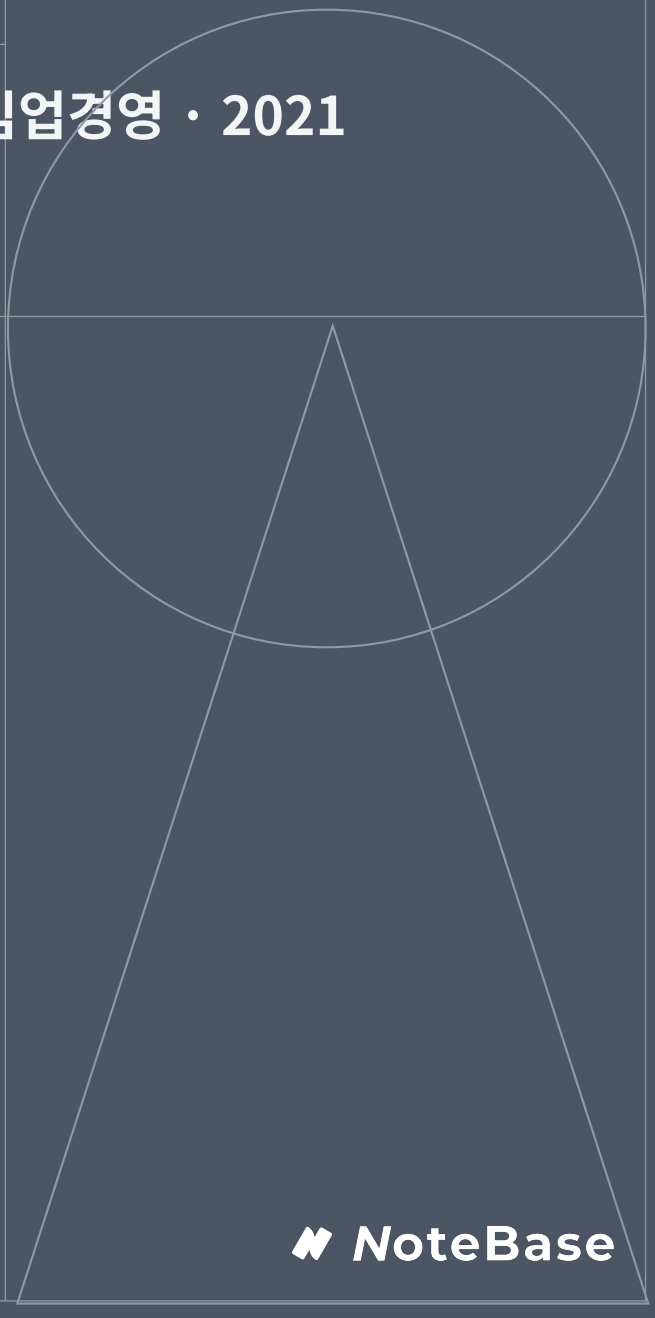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임업경영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임업경영 · 2021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임업경영 · 2021

1. 산림 경영의 지도 원칙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 최대의 이익이나 이윤이 나도록 경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산림 경영의 최고 지도 원칙에 해당한다.

① 경제성의 원칙
② 생산성의 원칙
③ 수익성의 원칙
④ 합자연성의 원칙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산림 경영의 지도 원칙 가운데 최대의 이익이나 이윤을 목표로 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제성의 원칙은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합리화하여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으려는 원칙이다.
생산성의 원칙은 토지·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단위당 생산량을 높이려는 원칙이다.
수익성의 원칙은 수입과 비용의 차이인 이익 또는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원칙이며, 산림 경영의 최고 지도 원칙에 해당한다.
합자연성의 원칙은 자연의 법칙과 산림 생태 조건에 맞도록 산림을 경영하려는 원칙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경제성의 원칙은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합리화하여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는 데 초점을 둔다. '최대의 이익이나 이윤' 및 '최고 지도 원칙'이라는 표현은 경제성이 아니라 수익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② X — 생산성의 원칙은 생산요소의 단위당 생산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최대의 이익이나 이윤'을 목표로 하는 원칙은 생산성이 아니라 수익성의 원칙이다.
③ O — 수익성의 원칙은 최대의 이익이나 이윤을 얻도록 경영하는 원칙이며, 산림 경영의 최고 지도 원칙에 해당한다.
④ X — 합자연성의 원칙은 자연의 법칙과 입지·생태 조건에 맞게 산림을 경영하는 원칙이다. '최대의 이익이나 이윤'을 목표로 하는 원칙은 합자연성이 아니라 수익성의 원칙이다.

오답 포인트

'경제성'과 '수익성'이 모두 경제적 성과를 다루므로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보기의 '이익이나 이윤'이라는 표현이 결정적 단서이며, 이는 수익성의 원칙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익·이윤·수입과 비용의 차이가 핵심이면 수익성, 단위당 생산량이면 생산성, 투입 대비 효과이면 경제성, 자연법칙과 생태 조건에의 적합성이면 합자연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윤 최대화는 수익성, 단위당 산출은 생산성, 투입 대비 효과는 경제성, 자연에 맞는 경영은 합자연성이다.

NoteBase

2. 산림 공간 정보 서비스(FGIS) 주제도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산림 경영, 산지 관리, 환경 영향 평가 등에 필요한 입지·토양 환경에 대해 토양형을 구획 단위로 조사 및 분석한 정보를 대축척화하여 수치 지도로 나타낸 산림 주제도이다.

① 임도망도
② 산지 구분도
③ 맞춤형 조림 지도
④ 산림 입지 토양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산림의 입지·토양 환경을 조사하여 토양형별로 나타낸 산림 주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산림 입지 토양도는 산림의 입지·토양 환경을 조사·분석하고, 토양형을 구획 단위로 구분하여 수치지도에 나타낸 주제도이다.
임도망도는 임도의 분포와 연결망, 산지 구분도는 산지의 구분 현황, 맞춤형 조림 지도는 입지 조건에 알맞은 조림 수종 정보를 중심으로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 임도망도는 임도의 위치·분포와 연결망을 나타내는 지도이다. 틀린 표현은 '임도망도'이며, 보기처럼 토양형을 구획 단위로 조사·분석한 지도는 '산림 입지 토양도'이다.
② X — 산지 구분도는 산지의 구분 현황을 나타내는 지도이므로, 토양형별 입지·토양 정보를 나타낸다는 보기와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산지 구분도'이며, 올바른 명칭은 '산림 입지 토양도'이다.
③ X — 맞춤형 조림 지도는 입지 조건에 적합한 조림 수종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지도이다. 틀린 표현은 '맞춤형 조림 지도'이며, 토양형 자체를 조사·분석하여 수치화한 지도는 '산림 입지 토양도'이다.
④ O — 산림 입지 토양도는 산림 경영·산지 관리·환경 영향 평가 등에 필요한 입지·토양 환경을 조사하고 토양형별로 수치지도화한 주제도이므로 보기의 설명과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 맞춤형 조림 지도도 입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보기의 결정적 표현은 '토양형을 구획 단위로 조사 및 분석'한 정보를 직접 나타낸다는 점이며, 이는 조림 수종의 추천 결과가 아니라 산림 입지 토양도의 정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도 이름과 보기의 핵심 대상을 연결한다. '임도·노선'이면 임도망도, '산지의 구분'이면 산지 구분도, '적합 조림 수종'이면 맞춤형 조림 지도, '입지·토양 조사와 토양형 구분'이면 산림 입지 토양도이다.

암기 포인트

토양형을 조사·구분해 수치지도화한 것은 산림 입지 토양도이다.

NoteBase

3. 2000년에 측정한 재적이 200m^3/ha였고, 2010년에 측정한 재적이 300m^3/ha였다. 프레슬러식을 이용하여 구한 생장률의 값[%]은?

① 2 ② 2.6
③ 4 ④ 8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두 시점의 재적과 경과 연수를 프레슬러식에 대입하여 연평균 생장률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 재적: $V_1 = 200m^3/ha$
최종 재적: $V_2 = 300m^3/ha$
경과 연수: $n = 2010 - 2000 = 10$년
구해야 할 값: 프레슬러식에 의한 연평균 생장률(%)

사용할 공식

프레슬러식은 다음과 같다.

$$p = \frac{200(V_2 - V_1)}{n(V_2 + V_1)}$$

여기서 p는 연평균 생장률(%), V_1은 기초 재적, V_2는 최종 재적, n은 경과 연수이다. 두 시점의 재적 평균을 기준으로 기간 중 증가량을 연평균화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재적 증가량은 $V_2 - V_1 = 300 - 200 = 100m^3/ha$이다.
2. 두 시점 재적의 합은 $V_2 + V_1 = 300 + 200 = 500m^3/ha$이다.
3. 프레슬러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p = \frac{200(300 - 200)}{10(300 + 200)} = \frac{20{,}000}{5{,}000} = 4\%$$

따라서 생장률은 4%이다.

선지 판단

① X — 2%는 프레슬러식의 계산 결과 4%와 일치하지 않는다. ①의 '2'는 '4'로 고쳐야 한다.
② X — 2.6%는 프레슬러식의 계산 결과 4%와 일치하지 않는다. ②의 '2.6'은 '4'로 고쳐야 한다.
③ O — 프레슬러식에 두 재적과 10년을 대입한 결과가 4%이므로 옳다.
④ X — 8%는 프레슬러식의 계산 결과 4%와 일치하지 않는다. ④의 '8'은 '4'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재적이 200에서 300으로 50% 증가했다는 사실만 보고 이를 그대로 생장률로 판단하면 안 된다. 프레슬러식은 두 시점 재적의 평균을 기준으로 증가량을 비율화하고, 다시 경과 연수 10년으로 나누어 연평균 생장률을 구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시점의 재적을 확인한 뒤 증가량 $V_2 - V_1$, 재적의 합 $V_2 + V_1$, 경과 연수 n을 각각 구하여 프레슬러식에 대입하고 최종 단위가 %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프레슬러식은 '재적 차에는 200을 곱하고, 재적 합과 경과 연수로 나눈다'로 기억한다.

NoteBase

4. 기계톱의 취득 원가가 400,000원, 내용 연수 4년, 잔존 가격 100,000원일 때 정액법에 의한 기계톱의 감가상각비의 값[원]은?

① 37,500 ② 75,000
③ 90,000 ④ 15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액법에 따라 기계톱의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취득 원가 400,000원, 잔존 가격 100,000원, 내용 연수 4년
구해야 할 값: 매년 동일하게 인식하는 감가상각비
주의할 조건: 정액법에서는 취득 원가 전액이 아니라 잔존 가격을 뺀 감가상각 대상액을 내용 연수로 나눈다.

사용할 공식

연간 감가상각비=취득 원가-잔존 가격내용 연수
정액법은 감가상각 대상액을 내용 연수 동안 매년 같은 금액으로 배분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감가상각 대상액은 400,000원 - 100,000원 = 300,000원이다.
2. 연간 감가상각비는 300,000원 ÷ 4년=75,000원/년이다.
3. 따라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75,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37,500원은 계산 결과인 75,000원과 다르다. '감가상각비는 37,500원'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는 75,000원'이 올바르다.
② O — 감가상각 대상액 300,000원을 내용 연수 4년으로 나누면 75,000원이므로 맞다.
③ X — 90,000원은 계산 결과인 75,000원과 다르다. '감가상각비는 90,000원'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는 75,000원'이 올바르다.
④ X — 150,000원은 감가상각 대상액 300,000원을 2년으로 잘못 나눌 때 나오는 값이다. '감가상각비는 150,000원'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는 75,000원'이 올바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취득 원가 400,000원을 그대로 4년으로 나누거나, 잔존 가격을 빼고도 내용 연수 4년이 아닌 다른 기간으로 나누는 실수가 함정이다. 정액법에서는 먼저 잔존 가격을 차감해 감가상각 대상액을 구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액법 문제는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격 차감 → 감가상각 대상액을 내용 연수로 나눔 → 금액과 기간 단위 검산'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액법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 원가 - 잔존 가격) ÷ 내용 연수이다.

NoteBase

5. 임업 이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업 이율은 대부 이자이다.
② 임업 이율은 평정 이율이다.
③ 임업 이율은 장기 이율에 해당한다.
④ 임업 이율의 계산은 복리 계산을 적용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임업 이율이 자본 이자·평정 이율·장기 이율의 성격을 가지며, 임업 계산에는 복리를 적용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임업 이율은 임업에서 자본과 이자의 관계를 나타내며 산림평가와 임업경영 계산에 사용하는 이율이다. 임업 자본 자체의 수익을 평가하는 자본 이자이고, 시장에서 실제로 형성된 현실 이율이 아니라 평가 목적에 맞게 정하는 평정 이율이며, 생산기간이 긴 임업의 특성상 장기 이율로 다룬다. 장기간 누적되는 이자는 복리로 계산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대부 이자'라는 표현이 틀렸다. 임업 이율은 빌려준 돈의 대가인 대부 이자가 아니라 임업에 투입된 자본의 수익을 나타내는 자본 이자이다. 올바르게는 '임업 이율은 자본 이자이다'라고 해야 한다.
② O — 임업 이율은 시장에서 실제로 형성되는 현실 이율이 아니라 산림평가와 경영 계산을 위해 정하는 평정 이율이다.
③ O — 임업은 조림부터 수확까지 생산기간이 길기 때문에 임업 이율은 장기 이율에 해당한다.
④ O — 장기간의 이자 누적을 반영해야 하므로 임업 이율의 계산에는 원금뿐 아니라 누적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 계산을 적용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대부 이자'를 일반적인 이자의 뜻으로 보고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자의 일반적 의미가 아니라 임업 이율의 성격을 묻는다. 임업 이율은 대부 이자가 아니라 자본 이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업 이율의 성격을 묻는 선지에서는 '자본 이자, 평정 이율, 장기 이율, 복리 계산'의 연결을 확인한다. 이와 반대로 '대부 이자, 현실 이율, 단기 이율, 단리 계산'이라고 제시하면 틀린 설명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임업 이율은 대부가 아니라 자본, 현실이 아니라 평정, 단기가 아니라 장기이며 계산은 복리이다.

NoteBase

6. 임가의 연간 가구당 임업 소득이 13,000,000원, 임업 외 소득이 15,000,000원, 연금 수령이 2,000,000원일 때 임가 소득의 값[원]은?
① 13,000,000
② 15,000,000
③ 28,000,000
④ 30,00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임가 소득을 구성하는 임업 소득, 임업 외 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하여 연간 가구당 임가 소득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임업 소득 13,000,000원, 임업 외 소득 15,000,000원, 연금 수령액 2,00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임가 소득이다.
주의할 조건: 연금 수령액은 이전소득에 해당하므로 합계에서 빼거나 제외하지 않고 더한다.

사용할 공식

임가 소득=임업 소득+임업 외 소득+이전소득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 제시된 임업 소득과 임업 외 소득뿐 아니라 연금 수령액인 이전소득도 임가 소득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연금 수령액 2,000,000원을 이전소득으로 분류한다.
2. 세 소득을 모두 더한다.
13,000,000 + 15,000,000 + 2,000,000 = 30,000,000
3. 따라서 임가 소득은 30,000,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13,000,000원은 임업 소득만 반영한 값이다. 임업 외 소득과 연금 수령액까지 합한 30,0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15,000,000원은 임업 외 소득만 반영한 값이다. 임업 소득과 연금 수령액까지 합한 30,0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28,000,000원은 임업 소득과 임업 외 소득만 더하고 연금 수령액 2,000,000원을 누락한 값이다. 연금 수령액도 이전소득으로 더하여 30,0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임업 소득 13,000,000원, 임업 외 소득 15,000,000원, 연금 수령액 2,000,000원을 모두 더한 값이 30,000,000원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연금 수령액을 임가 소득과 무관한 금액으로 보고 제외하면 ③의 28,000,000원을 고르게 된다. 연금은 이전소득이므로 임가 소득 계산에 포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가 소득 문제는 제시된 금액을 임업 소득, 임업 외 소득, 이전소득으로 분류한 뒤 세 항목을 빠짐없이 더하고, 누락된 소득 항목이 없는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임가 소득은 임업 소득, 임업 외 소득, 이전소득의 합이며, 연금은 이전소득에 포함된다.

NoteBase

7. 산림 법률 체계에서 산림 보호 분야의 법률이 아닌 것은?
① 「사방 사업법」
② 「산림 보호법」
③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④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산림 관련 법률을 산림 보호 분야와 그 밖의 정책 분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법률의 명칭만 보지 않고 각 법률이 규율하는 주된 목적과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산림 보호 분야 법률은 산림재해 방지, 산림보호구역 관리, 산림생태계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등 산림과 그 구성 자원을 보호하는 사항을 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핵심 구분

현행 각 법률의 목적을 기준으로 보면 「사방사업법」은 국토 보전과 재해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을, 「산림보호법」은 산림의 건강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자원화와 수목원·정원의 관리를 다룬다. 반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흡수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사방사업법」은 황폐지 복구와 토사 유출 방지 등 사방사업을 통해 국토를 보전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법률이므로 산림 보호 분야에 해당한다.

② O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관리, 산불·병해충 방지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사항을 규율하므로 산림 보호 분야에 해당한다.

③ X
이 법률은 산림 보호 자체보다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탄소흡수원 정책 법률이다.
틀린 표현: 산림 보호 분야의 법률이다.
올바른 표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다.

④ O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와 희귀·특산식물의 보전 등을 규율하므로 산림 보호 분야의 법률 체계에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③에 '산림'과 '유지'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산림 보호 법률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이 법률의 구분 기준은 일반적인 산림 보호가 아니라 탄소흡수 기능의 유지·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률명에 공통으로 '산림'이 들어가더라도 목적과 핵심 규율 대상을 확인한다. 재해 방지·보호구역·유전자원 보전이면 산림 보호 분야로, 탄소흡수·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대응이면 탄소흡수원 정책 분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사방·산림보호·수목유전자원 보전은 보호, 탄소흡수원은 기후변화 대응이다.

NoteBase

8. 수목 생장량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기 평균 생장량은 임목이 1년간 생장한 양이다.
② 평균 생장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생장한 양이다.
③ 연년 생장량은 총생장량을 수령으로 나눈 것이다.
④ 총생장량은 임목이 0년부터 n년까지의 기간에 생장한 양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임목의 총생장량, 평균생장량, 연년생장량을 어떤 기간과 산식으로 정의하는지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총생장량은 임목이 0년부터 현재 수령까지 누적하여 생장한 양이다.
평균생장량은 현재까지의 총생장량을 수령으로 나눈 1년당 평균 생장량이다.
연년생장량은 특정한 1년 동안 증가한 양으로, 해당 수령의 총생장량에서 직전 수령의 총생장량을 뺀 값이다.
정기생장량은 일정한 기간 동안 증가한 양이며, 이를 그 기간의 연수로 나누면 정기평균생장량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정기 평균 생장량은 임목이 1년간 성장한 양'이다. 임목이 특정한 1년 동안 생장한 양은 연년생장량이며, 정기평균생장량은 일정 기간의 생장량을 그 기간의 연수로 나눈 값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평균 생장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생장한 양'이다. 일정 기간 동안 생장한 양은 정기생장량이며, 평균생장량은 총생장량을 수령으로 나눈 값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연년 생장량은 총생장량을 수령으로 나눈 것'이다. 총생장량을 수령으로 나눈 것은 평균생장량이며, 연년생장량은 특정한 한 해 동안 증가한 양이다.
④ O — 총생장량은 임목이 0년부터 n년까지 누적하여 생장한 양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①의 '1년간'과 ③의 '총생장량을 수령으로 나눈다'를 서로 바꾸어 기억하기 쉽다. '특정한 한 해의 실제 증가량'은 연년생장량이고, '현재까지의 연평균'은 평균생장량이다. 또한 '일정 기간의 증가량'과 '그 증가량을 기간 연수로 나눈 값'을 각각 정기생장량과 정기평균생장량으로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누적이면 총생장량, 누적량을 수령으로 나누면 평균생장량, 특정한 1년의 증가분이면 연년생장량, 일정 기간의 증가분이면 정기생장량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총생장량은 0년부터 누적, 평균생장량은 총생장량÷수령, 연년생장량은 한 해의 증가분이다.

NoteBase

9. 무육 간벌 시, 최초 간벌로부터 주벌 시까지 간벌을 계획하는 주기[년]는?

① 1~5 ② 5~10

③ 10~15 ④ 15~2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무육 간벌에서 최초 간벌 후 주벌 때까지 후속 간벌을 계획하는 적정 주기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육 간벌은 임분의 밀도를 조절하여 남겨 둔 나무의 생육을 돕는 작업이다. 최초 간벌부터 주벌 시기까지의 간벌은 임분의 생장과 경쟁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5~10년 주기로 계획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1~5년은 기준인 5~10년보다 짧다. 틀린 표현은 '1~5년'이며, 올바르게는 '5~10년'이다.
② O — 최초 간벌부터 주벌 시기까지 간벌을 계획하는 주기는 5~10년이므로 적절하다.
③ X — 10~15년은 기준인 5~10년보다 길다. 틀린 표현은 '10~15년'이며, 올바르게는 '5~10년'이다.
④ X — 15~20년은 기준인 5~10년보다 지나치게 길다. 틀린 표현은 '15~20년'이며, 올바르게는 '5~10년'이다.

오답 포인트

'최초 간벌부터 주벌까지'라는 전체 기간을 묻는 것으로 오해하면 10~20년의 긴 범위를 고르기 쉽다. 문항은 그 전체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간벌을 되풀이하여 계획하는 주기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간벌을 계획하는 주기'가 제시되면 최초 간벌과 주벌 사이의 총기간이 아니라 후속 간벌의 계획 간격을 찾고, 5~10년을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무육 간벌의 계획 주기는 5~10년이다.

NoteBase

10. 우리나라의 산림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차 산림 기본 계획에서 「산지 관리법」을 제정하였다.

② 제4차 산림 기본 계획의 기간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이다.

③ 제5차 산림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산림 혜택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④ 제6차 산림 기본 계획에서는 국토 계획 및 환경 계획 등 관련 국가 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0년에서 20년으로 계획 기간을 연장하였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제3차부터 제6차까지 산림기본계획의 계획 기간과 핵심 정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각 계획의 시행 시기와 법률 제정 시점을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이다.

용어 풀이

산림기본계획은 국가 산림정책의 장기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핵심 구분

제3차 계획은 1988~1997년의 산지자원화 계획이고, 제4차 계획은 1998~2007년, 제5차 계획은 2008~2017년, 제6차 계획은 2018~2037년이다. 「산지관리법」은 2002년 12월 30일 제정되었으므로 제3차가 아니라 제4차 산림기본계획 기간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제3차 산림기본계획의 기간은 1988~1997년인데, 「산지관리법」은 그 이후인 2002년에 제정되었다.
틀린 표현: 제3차 산림기본계획에서 「산지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올바른 표현: 「산지관리법」은 제4차 산림기본계획 기간인 2002년에 제정되었다.

② O
제4차 산림기본계획의 계획 기간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10년이다.

③ O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숲을 활력 있는 일터·쉼터·삶터로 재창조하고, 다양한 산림 혜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④ O
제6차 산림기본계획은 국토계획·환경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계획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으며, 기간은 2018~2037년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제3차'라는 계획 차수와 2002년의 「산지관리법」 제정 시점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제3차 계획이 1997년에 끝났다는 점을 알면 바로 배제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계획의 기간을 3차 1988~1997년, 4차 1998~2007년, 5차 2008~2017년, 6차 2018~2037년으로 배열한 뒤, 제시된 법률·목표·계획 기간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3차는 산지자원화, 4차는 1998~2007년과 2002년 「산지관리법」, 5차는 일터·쉼터·삶터, 6차는 20년 계획이다.

NoteBase

11. <보기>에서 설명하는 표준목법은?

<보기>

이 방법은 조사 임분에 대하여 각 직경급별로 본 수의 비율로 표준목을 고르는 표준목법의 일종으로, 표준목을 선정할 때 전체 본수에 대하여 몇 %의 표준목을 선정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고 이를 각 직경급의 본수에 따라 비례 배분한다. 따라서 표준목의 수를 많이 할 때는 표준목이 직경급에 고루 배정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

① 단급법　② 우리히(Urich)법
③ 하르티히(Hartig)법　④ 드라우트(Draudt)법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직경급별 본수에 비례하여 표준목 수를 배분하는 표준목법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목법은 임분을 대표하는 표준목을 선정·측정하여 임분의 재적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드라우트법은 전체 표준목의 선정 비율을 먼저 정하고, 각 직경급의 본수에 비례하여 표준목 수를 배분한다.
따라서 표준목을 많이 선정할수록 여러 직경급에 표준목이 고르게 포함되어 정확도가 높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 단급법은 임분 전체를 하나의 계급으로 보아 대표 표준목을 정하는 방법이므로, 보기처럼 각 직경급의 본수에 비례하여 표준목 수를 배분하는 방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단급법'이며, 올바르게는 '드라우트법'이다.
② X — 우리히법은 보기의 '각 직경급별 본수에 비례 배분'이라는 선정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우리히법'이며, 올바르게는 '드라우트법'이다.
③ X — 하르티히법은 보기에서 제시한 본수 비례배분 방식의 명칭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하르티히법'이며, 올바르게는 '드라우트법'이다.
④ O — 드라우트법은 전체 본수 중 일정 비율을 표준목으로 정한 뒤 그 수를 각 직경급의 본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보기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단급법·우리히법·하르티히법도 모두 표준목 선정과 관련된 명칭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이 문제에서는 방법의 이름보다 '각 직경급의 본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는 문구가 결정적인 단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준목의 총비율을 먼저 정하고 직경급별 본수에 비례하여 표준목 수를 나눈다는 설명이 나오면 드라우트법으로 판단한다. 임분 전체를 하나의 계급으로 보는 설명은 단급법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드라우트법은 직경급별 본수 비례배분이다.

NoteBase

12. <보기>에서 설명하는 나무의 측정 기구는?

<보기>

나무에 끼워서 직경을 재는 이 기구는 눈금이 있는 자에 한쪽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각, 다른 쪽은 나무의 직경에 움직이는 유동각이 직각으로 붙어 있다. 사용 방법은 눈금자와 두 개의 각을 흉고 높이의 수간에 밀착시켜 유동각이 가리키는 눈금을 읽는 것이다.

① 윤척 ② 생장추
③ 측고봉 ④ 순토 클리노미터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나무의 직경·생장량·높이를 재는 기구의 구조와 용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고정각과 유동각 사이에 줄기를 밀착시키고 눈금을 읽는다는 설명이 핵심 단서이다.

핵심 개념

윤척: 나무줄기를 두 직각 사이에 끼워 직경을 직접 재는 기구이다. 키워드는 고정각, 유동각, 직경 눈금이다.
생장추: 줄기에서 목편을 뽑아 나이와 직경생장량을 조사하는 기구이다.
측고봉: 나무의 높이를 직접 재는 봉 형태의 기구이다.
순토 클리노미터: 시준하여 경사각을 읽고 나무의 높이나 경사를 측정하는 기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윤척은 눈금이 있는 자의 고정각과 이동하는 유동각 사이에 나무줄기를 끼워 직경을 읽으므로 보기의 설명과 일치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생장추'이다. 생장추는 줄기에서 목편을 채취하여 나이와 직경생장량을 조사하는 기구이며, 보기의 기구는 윤척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측고봉'이다. 측고봉은 나무의 높이를 재는 봉 형태의 기구이며, 보기의 기구는 윤척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순토 클리노미터'이다. 순토 클리노미터는 시준각을 이용하여 나무의 높이나 경사를 측정하는 기구이며, 보기의 기구는 윤척이다.

오답 포인트

'나무의 측정 기구'라는 공통점만 보고 생장추·측고봉·순토 클리노미터를 고르면 틀린다. 보기의 '고정각과 유동각 사이에 줄기를 끼운다'는 구조는 직경을 재는 윤척만의 단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측정 대상과 작동 방식을 함께 확인한다. 줄기를 두 각 사이에 끼우면 윤척, 목편을 뽑으면 생장추, 봉으로 높이를 재면 측고봉, 각도를 시준하면 순토 클리노미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윤척은 직경, 생장추는 목편·생장, 측고봉은 높이, 순토 클리노미터는 각도이다.

NoteBase

13. <보기>와 같은 비전을 제시한 산림 정책 계획은?

<보기>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 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 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 산림'

① 제3차 산지 자원화 계획
② 제4차 산림 기본 계획
③ 제5차 산림 기본 계획
④ 제6차 산림 기본 계획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비전의 핵심어인 '경제 산림·복지 산림·생태 산림'을 어느 산림 정책 계획과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6차 산림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37년까지의 국가 산림 장기계획이다. 이 계획은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 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 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 산림'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제3차 산지 자원화 계획은 실제로 존재하는 계획이지만, 제시된 경제·복지·생태 산림의 비전을 제시한 계획은 아니다. 이 비전은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비전이다.
② X — '제4차 산림 기본 계획'이라는 차수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제6차 산림기본계획이다.
③ X — '제5차 산림 기본 계획'이라는 차수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제6차 산림기본계획이다.
④ O — 제6차 산림기본계획은 일자리 창출의 경제 산림, 국민이 누리는 복지 산림,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 산림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오답 포인트

선지들이 제3차부터 제6차까지 비슷한 계획명을 연속으로 배열하여 차수를 혼동하게 한다. 특히 ①의 '산지 자원화 계획'과 ②·③의 '산림기본계획'을 단순히 시대 순서로 추측하면 틀리기 쉽다. 제시문의 세 핵심어를 하나의 세트로 식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전에 '일자리·경제', '모두가 누리는 복지', '사람과 자연의 생태'가 함께 나타나면 제6차 산림기본계획으로 판단한다.

Note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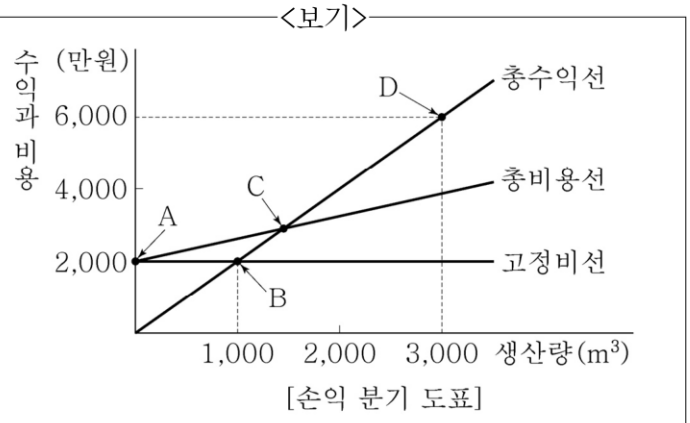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비전은 경제 산림·복지 산림·생태 산림이다.

NoteBase

14. <보기>에서 ○○ 산주의 손익 분기점을 [손익 분기 도표] A~D 중에서 고른 것은?

<보기>



[손익 분기 도표]

○○ 산주는 3,000m³의 생산한 제재목을 판매하여 6,000만원의 총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임업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해 위와 같이 [손익 분기 도표]를 작성하였다.

① A ② B ③ C ④ D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손익분기 도표에서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지점을 찾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세로축은 수익과 비용(만원), 가로축은 생산량(m^3)임을 확인한다.
2. 손익분기점의 조건인 총수익 = 총비용을 적용한다.
3. 총수익선과 총비용선이 만나는 점의 기호를 찾는다.

핵심 근거

도표에서 총수익선과 총비용선은 C에서 교차한다. C에서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 이익이 0이므로 손익분기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A — X
A는 생산량이 0일 때 총비용선이 고정비선과 만나는 2,000만원 지점으로, 고정비를 나타낸다. 총수익선과 총비용선의 교점이 아니므로 손익분기점이 아니다. 틀린 표현 'A'는 '고정비를 나타내는 지점'으로 고쳐야 한다.

② B — X
B는 총수익선이 2,000만원의 고정비선과 만나는 지점이다. 이 지점에서는 총비용이 총수익보다 크므로 손실이 발생한다. 틀린 표현 'B'는 '총수익이 고정비와 같아지는 지점'으로 고쳐야 한다.

③ C — O
C는 총수익선과 총비용선의 교점이다. 이 지점에서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으므로 손익분기점에 해당한다.

④ D — X
D는 생산량 3,000m^3에서 총수익이 6,000만원임을 나타내는 총수익선 위의 점이다. 같은 생산량에서 총비용선은 총수익선보다 아래에 있어 이익이 발생하므로 손익분기점이 아니다. 틀린 표현 'D'는 '생산량 3,000 m^3, 총수익 6,000만원을 나타내는 지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B는 총수익선과 고정비선의 교점이라 손익분기점처럼 보이지만, 손익분기점은 고정비가 아니라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한 총비용을 총수익과 비교해야 한다. D도 제시문에 나온 생산량과 총수익을 표시할 뿐 손익분기점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손익분기 도표에서는 총수익선과 총비용선의 교점을 찾는다. 교점보다 생산량이 적으면 총비용이 총수익보다 커 손실이고, 교점보다 많으면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커 이익이다.

암기 포인트

손익분기점은 총수익 = 총비용, 즉 총수익선과 총비용선의 교점이다.

NoteBase

15. 산림 평가에서 산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업의 대상지로서 산림 수익의 예측은 매우 쉽다.
② 목재 가격의 변동·생산량·재질의 향상 등은 장래 예측이 매우 어렵다.
③ 산림의 평가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장래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도 중요한 평가 인자가 된다.
④ 산림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자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생산된 것이므로 같은 모양과 품질인 것은 없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산림의 장기성·불확실성·개별성이 산림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산림평가는 산림에서 얻을 미래 수익과 산림의 현재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산림은 생산기간이 길고, 그동안 목재가격·생장량·재질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미래 수익의 예측이 어렵다. 또한 자연적으로 장기간 생육하므로 산림마다 수종·임령·입지·형태·품질 등이 달라 동일한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X — '산림 수익의 예측은 매우 쉽다'는 표현이 틀렸다. 산림은 생산기간이 길고 미래의 가격·생장·재질에 불확실성이 크므로, 올바르게는 '산림 수익의 예측은 매우 어렵다'이다.
② O — 목재가격의 변동뿐 아니라 생장량과 재질의 변화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장래 예측이 매우 어렵다.
③ O — 산림의 현재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조성·관리 과정과 장래의 생장·수익 가능성도 가치에 영향을 주므로 모두 중요한 평가 인자가 된다.
④ O — 산림은 자연조건 아래에서 장기간 생육하며 수종·임령·입지·형태·품질이 서로 달라, 같은 모양과 품질을 가진 동일한 상품이 존재하기 어렵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산림이 수익을 내는 자산이라는 점만 보고 수익 예측도 쉽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다. 산림은 수확까지 시간이 길어 예측기간이 길고 변동요인이 많으므로 오히려 수익 예측이 어렵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산림평가의 특성은 '장기성, 미래의 불확실성, 산림별 개별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측이 쉽다거나 산림의 형태·품질이 균일하다는 표현은 이 특성과 반대이므로 틀린 진술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산림은 오래 자라고 서로 다르므로 미래 수익은 예측하기 어렵다.

NoteBase

16. <보기>에서 설명하는 나무의 재적을 구하는 방법은?

<보기>

- 중앙 단면적에 원목의 길이를 곱해서 재적을 구하는 식이다.
- 직경을 한 번만 측정하면 되지만, 원목의 중앙부에서 직경을 재야 한다.
- 벌채목 재적(m^3)=중앙 단면적×벌채목 길이×1/10,000

① 흉고 형수법 ② 후버(Huber)식
③ 말구 직경 자승법 ④ 스말리안(Smalian)식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원목의 어느 위치에서 단면적을 구하는지에 따라 후버식, 스말리안식 등 재적 계산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중앙 단면적에 원목 길이를 곱하는 방법은 후버(Huber)식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조건: 원목의 중앙에서 직경을 한 번 측정하고, 그 중앙 단면적에 벌채목 길이를 곱한다.
구해야 할 것: 이 조건에 해당하는 원목 재적식의 명칭이다.
단위 조건: 중앙 단면적을 cm^2, 길이를 m로 사용하면 1/10,000을 곱해 재적을 m^3로 환산한다.

사용할 공식

후버식은 다음과 같다.
$V = g_m L$
여기서 V는 원목 재적, g_m은 원목 중앙의 단면적, L은 원목 길이이다. 문제에서 중앙 단면적과 길이의 곱을 제시했으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직경 측정 위치가 원목의 중앙임을 확인한다.
2. 중앙 직경으로 중앙 단면적 g_m을 구한다.
3. g_m에 길이 L을 곱하므로 $V = g_m L$인 후버식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흉고 형수법은 입목의 흉고단면적에 수고와 형수를 곱하여 재적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원목 중앙 단면적×원목 길이'가 아니라 '흉고단면적×수고×형수'로 고쳐야 한다.
② O — 후버식은 원목 중앙의 단면적에 원목 길이를 곱한다. 중앙에서 직경을 한 번만 측정한다는 조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X — 말구 직경 자승법은 원목의 말구직경을 제곱하고 길이를 곱하여 재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중앙 직경'이 아니라 '말구직경'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스말리안(Smalian)식은 원목 양 끝의 단면적을 평균한 뒤 길이를 곱한다. '중앙 단면적×길이'가 아니라 '원구 단면적과 말구 단면적의 평균×길이'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직경을 한 번 측정한다는 말만 보고 말구 직경 자승법을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의 결정적 표현은 '원목의 중앙에서 직경을 잰다'와 '중앙 단면적에 길이를 곱한다'이다. 스말리안식은 중앙이 아니라 양 끝 단면적이 필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면적의 측정 위치를 먼저 확인한다. 중앙 단면적 하나이면 후버식, 양 끝 단면적의 평균이면 스말리안식, 말구직경의 제곱을 쓰면 말구 직경 자승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후버는 중앙 하나, 스말리안은 양 끝 평균이다.

NoteBase

17. 국가 산림 자원 조사의 표본점을 정할 때 중앙 표본점을 중심으로 3방향에 삼각형 형태로 표본점을 설치한다. 중앙 표본점에서 3방향에 대한 표본점 간의 거리의 값[m]은?

① 3.1 ② 11.3
③ 32 ④ 5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국가 산림자원조사의 집락표본점에서 중앙 표본점과 3방향 표본점 사이에 적용하는 기준 거리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가 산림자원조사의 표본점은 중앙 표본점을 기준으로 3방향에 부표본점을 배치하며, 중앙 표본점에서 각 방향의 표본점까지의 거리는 50*m*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3.1*m*는 중앙 표본점과 3방향 표본점 사이의 기준 거리가 아니다. 틀린 값 3.1*m*는 50*m*로 고쳐야 한다.

② X
- 11.3*m*는 문제에서 묻는 표본점 간 기준 거리가 아니다. 틀린 값 11.3*m*는 50*m*로 고쳐야 한다.

③ X
- 32*m*는 중앙 표본점에서 3방향 표본점까지의 기준 거리가 아니다. 틀린 값 32*m*는 50*m*로 고쳐야 한다.

④ O
- 중앙 표본점에서 각 방향의 표본점까지의 거리는 50*m*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선지의 수치를 원형 표본점의 크기나 반지름과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은 표본점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중앙 표본점에서 3방향 표본점까지의 배치 거리를 묻고 있으므로 50*m*를 선택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서 '중앙 표본점에서 3방향'과 '표본점 간 거리'를 확인하면 집락표본점의 배치 간격을 묻는 것으로 판단하고 50*m*를 적용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중앙 표본점에서 3방향 표본점까지의 거리는 각각 50m이다.

NoteBase

18. 산림 관련 법령의 제정 시기를 옳게 짝지은 것은?
① 「산림 조합법」 – 1990년
② 「산림 보호법」 – 1994년
③ 「산림 기본법」 – 2001년
④ 「산지 관리법」 – 2010년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주요 산림 관련 법률의 제정 연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법률이 처음 공포된 제정 연도와 시행 연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제정 시기 = 해당 법률이 처음 만들어져 공포된 시기이다. 법률이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행 시기와는 다를 수 있다.

핵심 구분

공식 법령 연혁에 따른 제정 연도는 산림조합법 1980년, 산림보호법 2009년, 산림기본법 2001년, 산지관리법 2002년이다. 따라서 법률명과 제정 연도가 맞게 연결된 것은 산림기본법－2001년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산림조합법은 1980년 1월 4일 제정되었으므로 1990년이라는 연결은 틀리다.
틀린 표현: 산림조합법－1990년
올바른 표현: 산림조합법－1980년

② X
산림보호법은 2009년 6월 9일 제정되었으므로 1994년이라는 연결은 틀리다.
틀린 표현: 산림보호법－1994년
올바른 표현: 산림보호법－2009년

③ O
산림기본법은 2001년 5월 24일 제정되었으므로 법률명과 제정 연도가 옳게 연결되어 있다.

④ X
산지관리법은 2002년 12월 30일 제정되었으므로 2010년이라는 연결은 틀리다.
틀린 표현: 산지관리법－2010년
올바른 표현: 산지관리법－2002년

오답 포인트

산림기본법은 2001년에 제정되어 2002년부터 시행되었고, 산림보호법은 2009년에 제정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제정 연도와 시행 연도를 섞으면 ③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제에서 제정 시기를 물으면 법률의 최초 공포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각 법률을 '산림조합법 1980－산림기본법 2001－산지관리법 2002－산림보호법 2009'의 순서로 배열하면 선지를 빠르게 검토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산림조합 1980 → 산림기본 2001 → 산지관리 2002 → 산림보호 2009이다.

NoteBase

19. <보기>에 해당하는 임목 평가방법은?

<보기>

임목을 벌채할 때까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의 현재가 합계에서 그동안 발생되는 비용의 현재가 합계를 공제한 것이다. 이 방법은 벌기에 도달하지 않은 임분의 임목 평가에 주로 사용되며, 임목 수익가라고도 한다.

① 임목 비용가 ② 임목 매매가
③ 임목 기망가 ④ 시장가 역산법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벌기까지 예상되는 장래 수익과 비용을 각각 현재가로 환산하여 임목가를 평가하는 방법의 명칭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임목 기망가는 평가 시점부터 벌기까지 예상되는 간벌·주벌 수익의 현재가 합계에서 같은 기간에 발생할 비용의 현재가 합계를 뺀 값이다. 아직 벌기에 도달하지 않은 임분의 장래 순수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임목수익가라고도 한다.
임목 비용가는 과거에 임목을 조성·육성하는 데 투입한 순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임목 매매가는 유사한 임목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 역산법은 원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운반 등 시장 출하까지의 비용을 빼서 임목가를 거꾸로 산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임목 비용가는 현재까지 임목을 조성·육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의 후가 합계에서 그동안의 수입 후가 합계를 뺀 순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장래 기대수익의 현재가에서 장래 비용의 현재가를 공제하는 방법'은 임목 비용가가 아니라 임목 기망가이다.
② X — 임목 매매가는 유사한 임목의 실제 매매사례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벌기까지의 예상 순수익을 현재가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고치면 임목 기망가이다.
③ O — 임목 기망가는 벌기까지 얻을 기대수익의 현재가 합계에서 그 기간에 발생할 비용의 현재가 합계를 공제한다. 보기의 정의와 용도, 임목수익가라는 별칭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④ X — 시장가 역산법은 원목시장의 매매가격에서 벌채·운반 등 시장 출하까지 드는 비용을 공제하여 임목가를 추정한다. '장래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할인하여 그 차액을 구하는 방법'은 시장가 역산법이 아니라 임목 기망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비용가와 ③의 기망가는 모두 비용을 반영하므로 혼동하기 쉽다. 비용가는 이미 투입된 과거 비용을 중심으로 보고, 기망가는 앞으로 발생할 수익과 비용을 현재가로 본다는 시간 방향의 차이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벌기까지’, ‘기대수익’, ‘현재가’, ‘장래 비용 공제’가 함께 나오면 임목 기망가로 판단한다. 과거 투입비용이면 비용가, 실제 거래사례이면 매매가, 원목시장 가격에서 출하비용을 빼면 시장가 역산법이다.

암기 포인트

기망가는 미래 순수익의 현재가, 비용가는 과거 순비용, 매매가는 실제 거래가, 시장가 역산법은 원목가격에서 출하비용을 뺀 값이다.

NoteBase

20.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인증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FSC ② PSE

③ PEFC ④ KFCC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확인하는 국제·국가 산림인증 관련 약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산림인증은 산림이 환경적·사회적·경제적 기준에 따라 책임 있게 관리되는지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인증 원료의 유통 과정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FSC는 국제적인 산림경영·임산물 유통 인증 체계이고, PEFC는 국가별 산림인증제도를 상호 인정하는 국제 체계이다. KFCC는 우리나라의 산림인증 관련 체계이다. PSE는 이러한 대표 산림인증 약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FSC는 책임 있는 산림경영과 인증 임산물의 유통 관리를 다루는 국제 산림인증 체계이므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과 관련이 있다.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관련이 있다'가 올바른 판단이다.
② O — PSE는 FSC·PEFC·KFCC와 같은 대표적인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인증 약어가 아니므로 가장 관련이 없다. 산림인증 관련 국제 체계의 올바른 약어는 PEFC이다.
③ X — PEFC는 각국의 산림인증제도를 심사하여 상호 인정하는 국제 산림인증 체계이므로 관련이 있다.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관련이 있다'가 올바른 판단이다.
④ X — KFCC는 한국의 산림인증 기준과 제도 운영에 관련된 체계이므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과 관련이 있다.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관련이 있다'가 올바른 판단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PSE를 ③의 PEFC와 비슷한 산림인증 약어로 착각하기 쉽다. 핵심은 글자 배열이며, 국제 상호인정 체계의 정확한 약어는 PEFC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산림인증 약어 문제에서는 먼저 FSC와 PEFC를 국제 체계로, KFCC를 한국의 관련 체계로 묶는다. 이 묶음에 들지 않는 유사 약어를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산림인증은 FSC·PEFC·KFCC, PSE는 제외이다.

NoteBase